

참고 III-1.

한국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

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기존 금리를 인하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분석하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글로벌 협력 및 대외소통을 강화하였다.

표 III-8. 한국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

(2020년 말 기준)

구분	대응조치	주요 내용	
통화 신용 정책	기준금리인하	■ 1.25% → 0.50%(0.75%p)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 한도 확대 : 25조 원 → 43조 원(+18조 원) ■ 대출금리 인하 : 0.5%~0.75% → 0.25%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 공급실적 총 19.43조 원(7월 말 종료)
		비은행 대상 RP 매입	■ 공급실적 : 총 3.5조 원(3월 19일 1.0조원, 3월 24일 2.5조 원)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및 증권 확대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7월 말 종료) ■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 증권 확대
	국채 및 회사채·CP 시장 안정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도입	■ 총 한도 : 10조 원(운용기한 : 2021년 2월 3일) ■ 대출 담보 : 일반기업 발행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AA-이상) 회사채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 규모 : 10조 원(시장상황에 따라 20조 원까지 확대) ■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 : 1.78 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 매입실적 : 총 11조 원(3월·4월·7월·8월 각 1.5조 원, 9월 2.0조 원, 10월·11월 각 1.5조원)
	거시건전성 분석 평가	■ 가계·기업의 여신 및 유동성 상황 점검 ■ 코로나19 금융지원의 효과 및 리스크 점검	
금융 안정	외환시장 안정	통화스왑 체결 및 갱신	■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만기 : 2021년 9월말) ■ 중국(약 590억 달러) 및 호주(81억 달러) 중앙은행 등과의 통화스왑 확대 및 연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 총 198.72억 달러 공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국내은행(40% → 50%) 및 외은지점(200% → 250%)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20년 4~6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 제외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 자금을 공급 ■ 대상 채권 : 미 국채(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으로 확대)	
발권	화폐 수요 변화 대응	■ 오만원권 발주량 확대	
	화폐를 통한 감염 차단	■ 최소 2주간 금고내 보관 후 정사	
지급 결제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용 인하(70% → 5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	
외환 및 국제협력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정성 제고	■ 외화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 점검 ■ 외화자산 운용의 연속성 확보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14회), IMF·세계은행 회의(2회) 참여 ■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정례 4회 + 특별 3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 등 참여	
조사 통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분석	■ 세계교역,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을 분석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교류 지속	■ Annual Meeting of the CERA, FMA Annual Meeting 참여, 한·일 공동 리서치 워크숍 개최 등	
대외 커뮤니케 이션	비대면 소통 확대	■ 홈페이지 코로나19 정책대응 게시판 신설, 소셜미디어 활성화, 기자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등 ■ 디지털 화폐박물관 개설	

자료: 한국은행

참고 III-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유동성 공급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시장은 3월 들어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3월 10일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스왑레이트가 급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미 연준⁶⁷⁾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스왑 규모는 미 연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계약의 두 배 수준인 600억 달러로 큰 폭 확대되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⁶⁸⁾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였다.

곧이어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여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98.72억 달러를 공급하였으며 평균 낙찰금리(84일물)는 1회차 0.9080%에서 6회차 0.2941%를 기록하는 등 회차를 거듭함에 따

라 크게 하락하였다. 통화스왑 자금 공급 후에는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⁶⁹⁾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의 빠르게 안정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달러 자금시장 경색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 만기를 두 차례(7월, 12월) 6개월 연장⁷⁰⁾하였다.

표 III- 1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세부 내역

(억 달러, %)

입찰일	대상거래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¹⁾
3.31	84일물	100	79.20	0.9080
	7일물	20	8.00	0.5173
4. 7	84일물	70	41.40	0.5323
	8일물	15	2.75	0.4819
4.14	83일물	35	20.15	0.3567
	6일물	5	0.10	0.3300
4.21	84일물	35	21.19	0.3386
	6일물	5	0.00	-
4.27	85일물	40	12.64	0.3348
5. 6	83일물	40	13.29	0.2941
합계	-	365	198.72	-

주: 1) 가중평균 낙찰금리

자료: 한국은행

67) 2020년 3월 19일 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을 포함한 9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하였다.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한국,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및 300억 달러(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이며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68)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20일 코스피는 7.4%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하였다.

69)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물)는 3월 -141bp에서 5월 -32bp로 109bp 상승하였다.

70) 통화스왑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며 계약 기간만 각각 2021년 3월 31일,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참고 III-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벌권 업무 수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오만원권 수요가 큰 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오만원권 영업자금 부족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 수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오만원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화폐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오만원권의 발주량을 늘리고 한국조폐공사로부터의 신권 납품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표 III-15. 오만원권 순발행액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발행액	22.8	25.6	25.0	26.7	25.2
환수액	11.4	14.8	16.9	16.1	6.1
순발행액	11.5	10.8	8.1	10.7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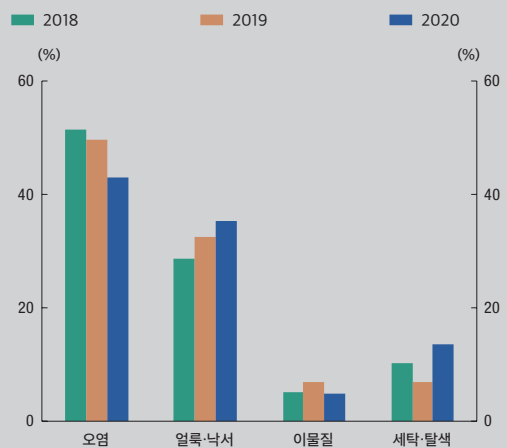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화폐 유통과정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2주 간 금고 내에서 보관한 후 정사⁷¹⁾를 실시하였고 정사 처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화폐 교환 업무가 손상·오염 화폐의 신속한 대체는 물론 국민들의 생업 유지 등에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국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적극 수행하였다. 2020년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한 교환 횟수는 약 33만 건으로 2019년 대비 약 4만 건 감소하였으나, 세차장 등 국민들의 영업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량주화⁷²⁾의 경우에는 3,600만 개를 교환하여 2019년(2,350만 개) 대비 교환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예로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국민들이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으로 화폐 소독을 시도함에 따라 화재·탈색으로 인한 화폐 손상이 전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부적절한 화폐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III-17 은행권 주요 손상요인



자료: 한국은행

71) 한국은행은 장수 및 액면확인, 위·변조 화폐의 추출, 사용 가능한 화폐와 손상된 화폐의 구분 등 유통화폐의 청결도 제고 및 위조 지폐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한 화폐 및 화폐교환, 국고수납으로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정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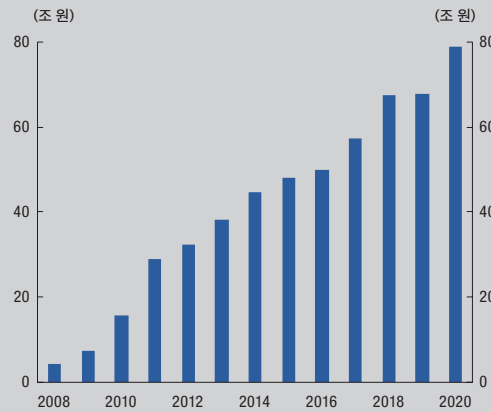
72) 대량주화란 화종별로 500원화 2,000개, 100원화 2,500개, 50원화 2,500개 또는 10원화 5,000개 이상의 주화를 말한다.

참고 III-4.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산 다변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 등으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채권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보유규모는 2008년 말 4.4조 원에서 2020년 말 78.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II- 22.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보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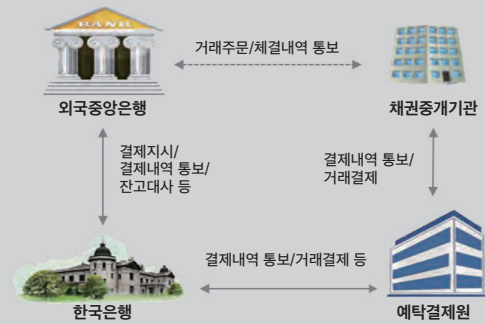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외국 공적기관의 한국채권 투자가 해당국의 대외준비금 운용 등 공적인 성격을 갖는 데다 자금 유출입 정도가 낮아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15년부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채권에 투자하는 외국 공적기관의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한국은행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경우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권의 보호예수, 원리금 수령, 매매대금 및 증권 결제, 원천징수,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5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를 대상으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림 III- 23.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구조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는 투자 관련 리스크를 축소시켜 외국 공적기관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한국은행은 다양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정례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업무운영 경험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등 중앙은행 간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업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III-5.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은행의 역사와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은행 70년사」를 발간하여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과 한국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동 책자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앙은행제도와 통화신용정책의 변천사를 압축적으로 기술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그림 III - 26. 「한국은행 70년사」



자료: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발달 등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수요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제작한 TV 다큐멘터리 「혼돈시대의 중앙은행」은 총 3부작에 걸쳐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 역사라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및 교육콘텐츠로 활용하였다. 또한 웹툰 「함께 꿈꾸는 세상(작가: 유성연)」

을 유명 포털(네이버)에 연재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은행의 정책 수행 과정을 만화로 쉽게 풀어내어 한국은행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높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역사, 주요 정책·기능 등을 정리한 리플렛을 국내 주요 기관에 비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창립 7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TV 다큐멘터리, 웹툰 등의 기념사업 콘텐츠를 함께 수록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은행의 역사, 화폐 변천사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한국은행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창립 70주년 기념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림 III - 27. TV 다큐멘터리 「혼돈시대의 중앙은행」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림 III - 28. 창립 70주년 기념 홈페이지



자료: 한국은행

참고 III-6.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현장 경제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 화상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들이 경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모션그래픽 등을 제작하여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그림 III- 29. 동영상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1편 「돈이란?」



자료: 한국은행

먼저 한국은행 발간 책자인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주요 내용 10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금융시장, 통화정책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물가를 주제로 제작한 「세월 속에 숨겨진 물가의 비밀」에서는 자장면을 통해 본 구매력 변화, 가격과 물가의 차이 등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청소년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 환율 등 핵심 경제지표를 설명하는 카드뉴스 8편을 동영상으로 구성하였다. 2019년에 이어 문학 속에

숨겨진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인 문학 속 경제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이야기」 2편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그림 III- 30. 모션그래픽 「로빈슨 크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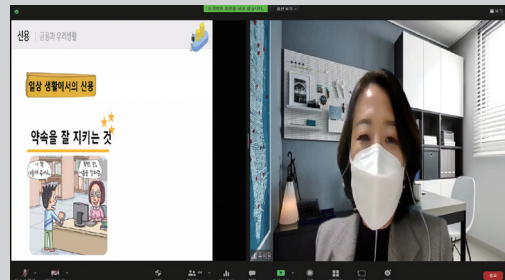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와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실시하였다. 「대학 전문강좌」 및 「교사직무연수」를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 제작, 화상 강의 실시 등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대국민과 소통하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III- 31. 비대면 「동계 초등교사 직무연수」



자료: 한국은행

참고 IV-1.

디지털혁신실 신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10년 시계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BOK 2030에서는 향후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도 한국은행이 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운영부터 내부경영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디지털 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0년 7월 디지털 혁신 추진 전담조직으로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실은 BOK 2030 전략방향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업무 중심의 신속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역량 강화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업무 중심의 혁신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표 IV- 3. 「BOK 2030」 전략방향과 디지털혁신실의 업무 추진 방향 간 관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ag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혁신의 유연하고 신속한 추진 디지털 혁신 관련 의사결정과 업무추진 방식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 디지털 전략 추진에 있어 신속한 디지털 혁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간 균형 추구
협업과 시너지(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혁신의 행내 전파와 원활한 정착 도모 협업과 소통을 통해 디지털 혁신 수요를 파악하여 디지털 혁신의 원활한 정착 및 업무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 행내 데이터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공유 극대화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expert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데이터 및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기반 및 분석역량 고도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연구역량 및 무 효율성 제고

자료: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은 혁신 조직으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디지털 혁신 주관 부서로서 디지털 혁신 전략의 기획 및 이행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 이행과정에서의 리스크 탐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국 및 여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디지털 혁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전담조직으로서 데이터 관련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중장기 데이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전행정 의사결정 및 협의 과정을 지원한다.

둘째, 혁신기획팀은 행내 데이터 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대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¹⁵⁴⁾ 체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데이터서비스팀은 행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조사연구플랫폼(BReIT, BOK Research Innovation Technology)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154) 데이터를 조직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지정하는 동시에 데이터 정책과 표준절차를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과 표준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 특히 부서별 데이터 분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신기술반은 사용자 부서의 업무 수요에 중점을 두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하고 그 성과를 행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등을 경제성장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금융경제의 잠재리스크를 포착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업무자동화 등 업무 전반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림 IV- 6. 디지털혁신실 조직도

